

## 짜깁기방식의 활판본 역사소설 연구\*

박 상 석\*\*

### 차 례

1. 서론
2. 역사·인물설화의 결합
  - 2.1. 「강감찬전」
  - 2.2. 「남이장군실기」
  - 2.3. 「인조대왕실기」
3. 역사·인물설화·일반설화의 결합
  - 3.1. 「선죽교」
  - 3.2.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
  - 3.3. 「신립대장실기」
4. 역사·인물설화·일반설화·타소설의 결합
  - 4.1. 「한씨보응록」
  - 4.2. 「홍장군전」, 「원두표실기」
5. 짜깁기방식 역사소설의 특성과 제작 배경
6. 결론

### 1. 서론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입으로 국권이 위태로웠던 애국계몽기에

\* 본 논문은 例上古典硏究會 제49차 정례학술발표회(2010.6.25)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토론을 해 주신 권혁래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연세대학교 한국 언어·문학·문화 국제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 연세대학교 강사. mojesabaha@naver.com

국내외의 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역사전기물이 나왔다. 「을지문덕(乙支文德)」, 「이순신전(李舜臣傳)」<sup>1)</sup>,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 「애국부인전(愛國婦人傳)」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독자에게 국권 상실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계몽성이 강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에 일제(日帝)가 신문지법(1907년 공포)과 출판법(1909년 공포)을 내세워 인쇄·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계몽적 역사적기물의 발행은 맥이 끊기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세기에 들어 신식 활판자(鉛活字)를 이용한 상업출판이 번성하면서 전대(前代)의 역사전기물과 성격이 다른 활판본(구활자본) 역사소설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되 국권 회복과 애국 등의 시사성(時事性) 있는 계몽적 주제를 내세우지 않고 통속적인 흥미를 주로 추구한 소설이다. 이러한 활판본 역사소설 중에는 이전 고소설을 개작한 것이 있고 새로 지어낸 신작이 있다.

활판본 신작 역사소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한 부류는 역사적 사실이 위주가 된 실기형(實記形) 작품들이다. 「이충무공실기」, 「이태왕실기(李太王實記)」, 「임오군란기」, 「세종대왕실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부류는 역사적 사실에 주인공의 인물설화가 결합되거나, 나아가 일반설화나 다른 소설의 내용까지 주인공과 관련된 이야기로 변형되어 결합된 작품들이다. 설화나 소설은 역사적 사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서사로 이들이 사실(史實)과 한데 엮여 한 인물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의 활판본 신작 역사소설 가운데 역사적 사실과 설화 등의 기타 서사가 결합된 작품들을 선별하여 해당 작품의 서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방식이 활용된 배경을 당시의 출판 환경, 작자, 독자와의 관

1) 「을지문덕」, 「이순신전」은 제목이 같은 여러 소설들 가운데 신채호(申采浩)의 작품을 말한다.

런 속에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반에 나온 활판본 소설의 텍스트 성격과 텍스트에 반영된 작자와 독자의 특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소설들은 모두 고소설 목록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다.<sup>2)</sup> 현재 활판본 고소설은 크게 개작과 신작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sup>3)</sup> 본고의 대상 작품들은 모두 신작 고소설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신작 고소설은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새로 지어진 소설인 만큼 신작 고소설 연구에 있어서는 우선 그 저작 방식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역사소설이 애정소설, 군담소설과 함께 신작 고소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sup>4)</sup> 그 저작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고는 신작 고소설 전반의 저작 방식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기도 함을 말해 둔다.

## 2. 역사·인물설화의 결합

이 장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설화를 결합한 세 편의 역사소설을 대상으로 서사 구성의 방식과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1. 「강감찬전」

활판본 소설 「강감찬전」은 다음 네 종의 이본이 확인된다.

- 
- 2) 조희웅, 「古典小說 異本目錄」, 집문당, 1999 ; 이주영, 부록 「구활자본 고전소설 목록」, 『舊活字本 古典小說 研究』, 月印, 1998 ; 권순궁, 부록 「활자본 고소설의 연도별 출판목록」, 『活字本古小說의 편목과 지향』, 보고사, 2000.
  - 3) 조동일, 제4관 『한국문학통사』 4, 2005, 347~355쪽 ; 권순궁, 앞의 책, 13~14쪽.
  - 4) 조동일, 앞의 책, 354쪽 ; 권순궁, 앞의 책, 56쪽.

- 1-1 禹基善 編輯 · 朴晶東 校閱, 『姜邯贊傳 全』, 發行者 玄公廉, 1908.7.15, 33면<sup>5)</sup>
- 1-2 玄公廉 著, 『姜邯贊傳 全』, 光東書局, 1914.7, 33면<sup>6)</sup>
- 2-1 編輯者 朴健會, 『高麗姜侍中傳』, 朝鮮書館, 1913.1.10, 45면<sup>7)</sup>
- 2-2 木寬樵夫, 『高麗名將 姜邯贊實記』, 永昌書館·韓興書林, 1928.12.28, 45면<sup>8)</sup>

1-1, 1-2는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이고, 두 본은 동일한 지형(紙型)으로 인쇄한 것이되 1-2는 1-1에 있던 서문을 뺐다. 이들은 작품 중에 일제를 경계하는 서술을 담고 있다.<sup>9)</sup> 2-1은 1을 순한글체로 바꾸면서 일제를 겨냥한 서술을 평범한 서술로 바꾸고<sup>10)</sup> 도리어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넣었다.<sup>11)</sup> 체제도 10회의 장회체로 바꾸었다. 2-2는 2-1을 대본으로 하여 다시 조판해 인쇄한 것이나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서술은 도로 빼고 체제도 약간 수정했다. 한주국종체의 「강감찬전」에 첨삭을 가한 순한글 소설이 1959년과 1960년에 걸쳐 잡지에 연재되기도 했다.<sup>12)</sup>

- 
- 5) 한국학 문헌연구소 편, 『역사·전기소설』 8권, 아세아문화사, 1979에 영인.
  - 6) 연세대 국학자료실 소장.
  - 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1권, 은하출판사, 1983에 영인.
  - 8) 정명기 소장.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정명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9) 近世以來로 人心이 漸巧하고 侵奪이 日盛하고 優勝劣敗에 弱肉強食의 時代가, 되얏스니 我國이 海東에 在호야 西北으로 契丹, 蒙古, 遼, 金이 在호고 東南으로 日本이 有호야 其土地가 礪确호므로 我의 形便을 日로 伺察호오니, 만일 一朝에 不虞의 變이 有호면 餓虎의 口가, 엇지 內養의 土를 知호며 野人의 眼에, 엇지 麒麟을 知호릿가 (30~31쪽. 띄어쓰기는 필자.)
  - 10) 위 각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  
만근이리로 변방오랑키의 침탈이 날노 성호와 서로 틈을 엿보오니 이것을 미리 방비치 안이호얏다가 만일호로 아츰에 불우의 변이잇스면 주린범에 입이엇지 니양에 선비를 알며 야인의 눈에 엇지 길이를 알니잇가 (42쪽)
  - 11) 이갓치호지 슈년에 일경에 디치호여 부운이 갈닐가 두려워함이 맞치 지금조선시대로 말호면 사너총독(초대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필자 주)에 어진 덕화를 구가함과 흡사호더라 (12쪽)
  - 12) 朴容九, 『姜邯贊傳』(一)~(四), 『地方行政』, 大韓地方行政協會, 8권 10호

「강감찬전」은 강감찬의 탄생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끝나는 일대기 형식을 취했다. 강감찬의 탄생담은 전형적인 고소설 투로 꾸며져 있다.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부친 강궁진(姜弓珍)이 산이 입속에 들어오는 태몽을 얻어 부인과 교합한 후 큰 별이 그의 집에 하강하면서 강감찬이 태어난다. 이후 강감찬이 한양판관(漢陽判官)과 경주군수(慶州郡守)가 되어 신이(神異)한 행적으로 관내(官內)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는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여 강감찬이 앞장서서 이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란의 고려 침입에 관한 이야기는 강감찬과 소손녕(蕭遜寧)의 대립 구도로 펼쳐진다. 이 부분은 중간, 중간에 역사적 사실을 배치하고 그 사이 사이에 상상의 대화와 묘사를 넣고 상황의 디테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강감찬 군대와 소손녕 군대 간의 전투 장면은 군담소설의 그것처럼 그려져 있다. 아래에서 소설 본문과 관련 역사기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先時에 契丹의 退歸할 時에 興化鎭都巡撫使 楊規와 別將 金叔興과 中郎將 保良이 龜州에서 掩擊호야 萬餘級을 斬馘호고 又, 無老代에서 二千餘級을 獲호며 被虜호는 男女 三千餘人을 奪還호고 梨樹에서 二千五百餘級을 斬호며 俘虜 千餘人을 奪호는 後, 三日에 又, 余里站에 追及호야 千餘級을 斬호며 奪俘虜 千餘人을 奪호고, 又 艾田에 邀擊호야 千餘級을 斬호는 後에 大陣을 遭遇호야 楊規와 金叔興이 終日 力戰호다가 兵盡失窮호야 死호는 後에 契丹이 鴨綠江을 渡호는 興化鎭使 鄭成이 契丹의 半渡호는 乘襲호야 敵兵의 滄死호는 者 이 其數를 不知호며 敵에게 降호얏든 郡縣이, 다시 恢復한 故로…… (禹基善 編輯 · 朴晶東 校閱, 『姜邯贊傳 全』, 發行者 玄公廉, 1908.7.15, 15쪽. 띄어쓰기는 필자.)

契丹主入京焚宮闕, 而退龜州, 別將金叔興, 與中郎將保良, 擊契丹兵, 斬萬餘

(1959.10.1) · 8권 11호(1959.11.1) · 8권 12호(1959.12.1) · 9권 1호(1960.1.1), 총26면(2단 인쇄)

級, 規掩擊於無老代, 斬二千餘級, 奪被虜男女三千餘人, 又戰於梨樹, 斬二千五百餘級, 奪俘虜千餘人後, 三日又戰於余里站, 斬千餘級, 奪俘虜千餘人, 是日三戰皆捷, 復邀其前鋒於艾田擊之, 斬千餘級, 俄而契丹大軍奄至, 規與叔興終日力戰, 兵盡失窮, 俱死於陣, 契丹兵爲諸將鈔擊渡鴨綠江, 引去興化鎮, 使鄭成追之, 及其半渡尾擊之, 契丹兵溺死者甚衆, 諸降城皆復。(著作者 洪良浩, 『楊規』, 『東國名將傳』, 發行者 玄公廉, 1907.1.7, 26쪽.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작자는 책으로 보았거나 혹은 이야기로 들었을 강감찬 관련의 역사적 사실을 작품에 집어넣었다. 위 인용문은 역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작품 중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꽤 많다. 『강감찬전』이 수용한 역사기록은 『고려사(高麗史)』, 『동국통감(東國通鑑)』,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등에 나오는 것이다. 이들 역사서의 강감찬 관련 기록은 동일한 텍스트이며 부분적으로 상호 출입(出入)이 있다. 그 가운데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지어 1816년(순조 16)에 인간(印刊)되었던 『해동명장전』이 1907년에 『東國名將傳』이라는 제목의 활판본으로 발행되었다.<sup>13)</sup> 그리고 원작 『강감찬전』(1-1)과 『동국명장전』의 발행자가 모두 현공렴(玄公廉)이다. 따라서 원작 『강감찬전』의 작자가 참고한 책은 바로 이 『동국명장전』일 가능성이 높다.

강감찬이 한양판관, 경주군수가 되어 신이한 행적을 보이는 두 편의 이야기는 각각의 내용이 이렇다. 강감찬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판관이 되었는데 관내에 호환이 매우 심했다. 강감찬이 사령 하나를 시켜 삼각산 꼭대기에 있는 노승을 불러온다. 노승은 호랑이가 변신한 것으로 강감찬이 그를 호령하여 멀리 쫓아내자 그로부터 호환이 사라졌다. 한양판관의 임기가 다하자 임금이 강감찬을 경주군수로 보내 경주 백성들을 복종시키도록 한다. 경주 백성들이 강감찬을 시험해 볼 양으로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를 없애 달라고 한다. 강감찬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 머리에 글자

13) 著作者 洪良浩, 『東國名將傳』, 發行者 玄公廉, 1907.1.7.

를 새기고 다시는 울지 말라고 분부하여 돌려보내니 개구리 소리가 잠잠 해졌다. 경주 사람들이 그로부터 나라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에 강감찬의 것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가져온 것이다.<sup>14)</sup> 줄거리는 설화와 같으며 여기에 소설적인 대화와 묘사, 디테일을 넣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소설 전체의 일대기 형식에 맞추어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강감찬이 장원급제를 한 다음 한양판관을 제수 받고, 한양판관의 과기(瓜期)가 된 다음 경주군수를 제수 받으며, 경주군수의 과기가 된 다음 내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며 이후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음 이야기를 서술한다. 독자는 강감찬의 실제 행적과 시간 순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양 느끼게 된다.

## 2.2. 「남이장군실기」

「남이장군실기」는 동일한 지형으로 인쇄한 다음 초판과 재판이 전한다. 표지는 서로 달라졌다.

1. 著作者 張道賦 · 發行者 金東緒, 『勇猛無敵 南怡將軍實記』, 德興書林, 1926.12.30, 50면<sup>15)</sup>
2. 著作兼發行者 金東緒, 『勇猛無敵 南怡將軍實記』, 德興書林, 1935.12.15, 50면<sup>16)</sup>

「남이장군실기」는 총 5화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제목이 붙어 있다. 1

14) 호랑이 퇴치담은 「慵齋叢話」 권3 (경산대학교 편, 「慵齋叢話」, 학민문화사, 2000. 99~102쪽. 권순궁, 앞의 책, 61쪽 참고);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 2-5. 375~383쪽 등. 개구리 퇴치담은 「대계」 6-8, 880~882쪽 등.

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권, 은하출판사, 1983에 영인.

1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화 '一. 남이장군의 소년시대'는 남이가 남휘(南暉)와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貞善公主)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이야기로, 실제의 가계(家系)를 바탕으로 하고<sup>17)</sup> 고소설 투의 인물묘사를 많이 부연한 것이다. 2화 '二. 남이장군의 결혼'은 남이가 권람의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주쟁이에게 단명할 팔자인 자신보다 권람(權擘)의 딸이 더 단명할 것이라 말하도록 하여 그녀와 혼인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로, 이는 남이에 관한 두 편의 설화를 적절히 변형하고 결합한 것이다. 3화 '三. 남이장군이 리시에 난을 평정함'은 세조 13년(1467)에 이시애(李施愛)가 함경도에서 난을 일으켜 남이가 선봉대장이 되어 이를 진압하고 이시애를 참수시켰다는 이야기로, 이는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화 '四. 남이장군이 오랑캐 왕을 베어 죽임'은 세조 13년 압록강 북편 여진족의 왕 이만주(李滿住)가 조선의 변경을 침노하여 남이가 선봉대장이 되어 이만주를 위시한 적군을 소탕하였다는 이야기로, 역시 역사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5화 '五. 남이장군이 원통히 죽음'은 남이가 역모의 모함을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로 야사(野史)에 전하는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처럼 「남이장군실기」의 이야기들 중에는 역사적 사실에서 온 것도 있고, 남이의 인물설화에서 온 것도 있다. 「남이장군실기」 역시 사실(史實)과 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대화와 묘사, 허구의 장면을 부연하고 전투 장면은 군담소설 식으로 처리했다. 작품 속의 사실과 설화는 여러 문헌에 전하거나 구비 전승되는 것인데,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는 이들 사실과 설화의 대부분이 모아져 있다. 「남이장군실기」의 작자는 「연려실기술」에 이미 모아져 있는 이들 남이 관련 이야기를 주로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이장군실기」와 「연려실기술」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그러나 정확히는 남이가 태종의 외손이 아니라 외증손이며, 정선공주의 외손이다. (『예종실록』, 예종즉위년 11월9일 네 번째 기사)



二. 남이장군의 결혼	『연려실기술』 권6 「睿宗朝故事本末, 南怡之獄」
三. 남이장군이 리시에 난을 평정함	『연려실기술』 권5 「世祖朝故事本末, 李施愛之亂」
四. 남이장군이 오랑캐 왕을 베어 죽임	『연려실기술』 권5 「世祖朝故事本末, 征建州衛野人」
五. 남이장군이 원통히 죽음	『연려실기술』 권6 「睿宗朝故事本末, 南怡之獄」

1910년대에 들어 최남선(崔南善)이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사쿠오 슌조(釋尾春菴)가 설립한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 호소이하지메(細井肇)가 설립한 조선연구회(朝鮮研究會)와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에서 여러 조선 고서를 활발하게 간행해 낸다. 「연려실기술」은 조선광문회에서 1912~15년에, 조선고서간행회에서 1912~13년에 발행하였다.<sup>18)</sup> 당시 소설 작자들이 보기에 용이한 것은 아마도 이런 책들이었을 것이다.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을 것으로 보이는 「남이장군실기」의 한 대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때는 세조대왕 십삼년 정해니, 곳 서력괴원 일천사백륙십칠년이었다. 당초에 함경도 길주군에 리시에라 하는 사람이 잇스니 위인이 비범하고 더욱 수상한 생각을 가진 지 오리어더니, 시에 | 회녕부사로 잇다가 맞춤 상제되야 집에 잇스매 시애는 가만히 큰 단체를 맨드러 남모르게 혁명 난을 니러 키기를 준비하니라. 시애 | 다수한 사람을 비밀히 체결하야 이제는 여러 천 명이 된지라. 이때 시애 | 난을 니러킬시 시애 그 무리를 사면으로 보내 함경도 각 군 사람에게 비밀히 전파하야 갈오되, “지금 전라, 충청, 경상, 하삼남에서 큰 난이 니러 장차 함경도를 빼앗기 위하야 군함과 육군이 만히 드

18) 오영섭, 「朝鮮光文會 研究」, 韓國史學史學會, 『韓國史學史學報』 3, 2001.3 ; 최혜주,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大東文化研究』 66, 2009.

러와 함경도 경성 후라섬에 다다랐고, 또 정부에서는 평안도, 황해도의 군사를 보내 설한녕을 넘어 함경도로 드리워 삼남 군사를 치매 함경도도 삼남과 한속이라 하여 서도 군사들이 함경도 사람을 남녀노소 업시 다 죽인다.” 하니 함경 일도 사람들이 다 크게 놀래더라. 이때 시애 | 북도 관찰사 오잉의 부하 관리를 끼고 사면에서 삼남 군사가 드리온다는 보고와 서도 군사가 드리온다는 보고를 거죽 맨드러 오잉에게 보고하니 오잉이 또한 크게 놀내 이에 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여 백성들로 하여곰 산에 올라 병난을 피하라고 명령하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소동되야 서로 피난할 준비를 하며 모다 물건을 싣고 산중에 드러가며 남녀노소가 다 울며볼며 하는지라. (『남이장군실기』, 18~19쪽. 현대적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十三年丁亥, 李施愛叛. 施愛吉州人, 歷官會寧府使, 遭喪家居蓄異心, 使其黨流言曰, ‘下三道兵, 水陸并進, 忠清道兵船, 來泊鏡城厚羅島, 又朝廷遣平安黃海兵, 自薛罕嶺(一作雪寒嶺)入北道, 將盡殺本道人’. 觀察使吳凝亦信之, 移文各官, 令民登山, 心疑恐. (『世祖朝故事本末, 李施愛之亂』, 『연려실기술』 5권.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두 글에서 같은 내용이 같은 순서로 서술되는 가운데 「남이장군실기」에 약간의 내용이 부연되어 있을 뿐이어서 두 텍스트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인조대왕실기」

「인조대왕실기」는 세창서관(世昌書館)에서 발행되었고 총 54면이다.<sup>19)</sup> 판권지가 없어 발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1928년에 나온 『슈딩삼국지』 3판에 광고가 실려 있어 이 무렵이나 그 이전에 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인조대왕실기」는 제목대로 인조라는 인물에 중심을 둔 이야기가

19)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30권, 은하출판사, 1984에 영인.

20) 조희웅, 앞의 책 참고.

아니라 인조 대에 일어난 세 가지의 큰 사건인 인조반정, 이괄의 난, 병자호란을 다룬 소설이다.

첫째, 인조반정에 관한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부분은 광해군, 정원군(인조의 부친), 반정의 공신들, 이씨(이귀의 딸이자 김자점의 제수), 김상궁(광해군의 총첩)에 관한 이야기와 반정의 경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서술되는 부분이다.(1~7, 20~31쪽) 이 이야기들은 대개 야사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연려실기술」의 기록과 같은 내용이 많다. 다른 한 부분은 반정공신인 이시백 부자, 이기축, 최명길, 원두표에 관한 야사, 혹은 설화 성격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다.(7~20쪽) 이기축, 최명길, 원두표 이야기의 경우 모두 그의 아내들이 주인공으로 외조를 통해 남편을 반정에 참여시켜 공을 세우게 했다는 공통성이 있다. 이기축 이야기는 여러 문헌·구비설화에 보인다.<sup>21)</sup>

둘째, 이괄의 난에 관한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정충신(鄭忠信)이다. 반정공신이었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 도성을 침범하며 정충신이 선봉대장으로 나서 난을 진압한다. 그리고 정충신이 청에 사신으로 가 당당한 태도로 청과 형제지약을 맺고, 인조 4년에 청이 조선을 침략하자 다시 형제지약을 맺어 물러가게 한다. 이들 내용은 역사기록인 「해동명장전」의 「鄭忠信」 조(條)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셋째, 병자호란에 관한 부분에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 지방 각지의 장수들이 패하고 강화도가 함락되는 이야기,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가 청과 강화조약을 맺는 이야기, 청의 요청으로 임경업 등이 명을 공격하나 명에 피해가 없게 한 이야기, 청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왔는데 인조가 그를 쾌쌌히 여겨 벼룩돌로 때려죽인 이야기 등의 야사 및 설화가 나온다. 이 부분도 「연려실기술」 26권 「(仁祖)祖故事本末」 중 <諸將事蹟>

21) 『溪西野談』 권4 (유화수·이은숙 역주, 『계서야담』, 국학자료원, 2003, 438~440쪽); 『대계』 1-1, 745쪽 등.

<亂後時事>, <淸人徵兵> 등에 나오는 내용이 많다.

「인조대왕실기」의 작자가 어떠한 책을 참고하였다면 그것은 「연려실기술」, 「해동명장전」일 가능성이 높다. 「인조대왕실기」와 관련된 두 책의 텍스트는 다른 문헌들에도 실려 있지만 앞에서 본대로 두 책이 1910년을 전후해 근대적 출판물로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조대왕실기」의 내용 중에는 「연려실기술」, 「해동명장전」과 거의 같은 듯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들이 있고, 이 두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는 이야기들도 꽤 있다. 작자는 두 문헌의 내용 외에도 이러저러한 자료에서 읽은 이야기며 전해들은 이야기 따위를 기억했다가 그 나름의 재구성을 거쳐 집필한 듯하다. 그리고 작자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설화나 허구적인 내용은 거의 넣지 않고, 작품 군데군데에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논평을 집어넣는 등 비교적 진지한 서술 태도를 보였다.

### 3. 역사·인물설화·일반설화의 결합

이 장에서는 역사적 사실, 주인공의 인물설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화까지 주인공의 이야기로 만들어 짜깁기한 소설들을 대상으로 그 서사 구성 방식 및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1. 「선죽교」

「선죽교」는 동일한 지형으로 인쇄한 다음 세 종의 판본이 전한다. 2의 표지는 1의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그린 것이고, 2와 3은 표지까지도 똑같다.

1. 著作兼發行者 高裕相, 『善竹橋 一名 鄭圃隱傳』, 滙東書館 · 三文社書店 · 新明書林, 1930.10.25, 47면<sup>22)</sup>
2. 申泰三, 『善竹橋 一名 鄭圃隱傳』, 世呂書館, 1952.12.30, 47면<sup>23)</sup>
3. 저자 · 발행자 미상, 『善竹橋 一名 鄭圃隱傳』, 世呂書館, 발행연도 미상, 47면<sup>24)</sup>

「선죽교」는 정몽주의 탄생담에서부터 사후(死後) 이야기까지를 일대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선죽교」에 나오는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이 「고려사」, 「동국통감」,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 등에 실려 있고, 이들 문헌의 정몽주 관련 내용은 역시 동일 텍스트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이들 문헌 중 「선죽교」의 작자가 무엇을 보았을 지는 작품 도입부에 나오는 다음 작자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이사람도 포은선생전을 보다가 감동함을마지안니하여 선죽교란제목 을가지고 선생의 자초지종역사를 보기쉬운 언문으로 번역하여 부녀아동까지 라도 선생은 특이한사람인줄을 알도록 함이다 그러나 이사람은 의견이미 거하고 언변이부족하여 선생의 도저한덕행과 지극한충절을 비진히번역지못 하여 루락함이만앗슬까 스사로 의심함이 적지안이하다<sup>25)</sup>

여기서 말하는 ‘포은선생전’은 정몽주의 문집인 「포은선생집」을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포은선생집」에는 「선죽교」에 나오는 내용 중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손순효 이야기<sup>26)</sup>나 정몽주의 초상화에 숙종이 찬(贊)한 시<sup>27)</sup> 등도 나온다.

22) 홍윤표 소장. 자료를 제공해 주신 홍윤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3) 국회도서관 소장.

24)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5권, 은하출판사, 1984에 영인. 이 「선죽교」에는 판권지가 없다. 그런데 본문 뒤의 광고지 「急告」에 ‘西紀 1961年 6月 1日부터 …… 代金引換制度가 復活되어’라는 구절이 있어 이 책이 1961년 당시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5) 『선죽교』, 1쪽.

26) 『선죽교』, 46쪽 ; 포은학회 편, 『圃隱先生集』, 한국문화사, 2007, 354~355쪽.

「선죽교」는 우선 정몽주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설화를 가져왔다. 사실(史實)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정몽주가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김득배가 모함을 받아 죽자 모두가 외면하는 그의 시신을 수습한 일, 정몽주가 명나라에 사신을 갔다 돌아오던 중 한 섬에 표류하여 여러 날 말다래만 씹으며 버티다가 구조된 일, 명 태조의 고려에 대한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정몽주가 사신으로 뽑혀 가게 되었는데 90일 가야 할 길을 명 태조의 탄신일에 맞춰 60일 만에 도달한 일 등. 그리고 정몽주의 인물설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정몽주가 어렸을 적 그의 모친이 검은 용이 배나무에 서린 꿈을 꾸고 나가보니 정몽주가 배나무에 올라 앉아 이름을 몽룡(夢龍)으로 했었다는 일, 경상감사 손순호가 꿈에 정몽주를 보고 그의 고택을 찾아가 효자비를 고쳐 세웠다는 일 등. 「선죽교」 역시 문헌의 기록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를 상상의 대화와 묘사, 허구의 내용으로 채우는 기법을 쓰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선죽교」는 정몽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설화<sup>28)</sup>를 가져다가 이를 정몽주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다.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해 정몽주가 시묘를 할 때 범이 그를 태우고 다녔다. 이는 호랑이가 효자를 태우고 다니는 설화<sup>29)</sup>를 가져온 것이다. 한 유생이 시모(媼母)의 시묘를 하는 과부를 겁간하려다 그녀가 저항하자 죽인다. 점쟁이의 지시에 따라 유생이 부친의 시묘를 하고 있는 정몽주의 곁에 있어 벼락을 피한다. 결국 유생은 정몽주를 모시는 범에게 물려 죽는다. 이는 관련 설화를 찾지는 못했으나 내용 상 역시 설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정몽주가 경상도 안렴사(按廉使)를 할 때 계모에게 맞아 죽은 여귀가 나타나 원억함을 호소한다. 정몽주가 계모를

27) 「선죽교」, 47쪽 ; 포은학회 편, 『圃隱先生集 續錄』, 한국문화사, 2007, 31쪽.

28) 이후 '일반설화'는 소설 주인공에 관한 인물설화 이외의 설화라는 뜻으로 쓰기로 한다.

29) 「대계」 2-6, 335쪽 등.

잡아다 처형한다. 이는 「장화홍련」 유(類)의 혼한 설화를 가져온 것이다. 역시 정몽주가 경상도 안렴사를 할 때 옛 벗인 중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면화 따는 여자를 범하려다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에 정몽주가 중을 처형한다. 이는 여인을 겁간하려다 죽인 못된 중을 징치하는 설화<sup>30)</sup>에서 온 것으로, 고소설 「삼쾌정」 2화와 뒤에서 볼 「신림대장실기」 2화도 이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일반설화에서 가져온 이들 이야기는 강간, 살해, 복수를 다루고 있다. 작자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야기는 문헌 기록을 토대로 한 앞뒤 이야기와 교묘히 연결되어 있다. 정몽주가 부모의 시묘를 한 실제 사실이 서술된 다음에 호랑이가 시묘하는 정몽주를 태우고 다닌 이야기와 유생이 과부를 살해한 다음 시묘하는 정몽주 곁에서 벼락을 피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몽주가 경상도 안렴사가 되었다는 실제 사실이 서술된 다음에 의붓딸을 죽인 계모와 여인을 죽인 중을 정몽주가 안렴사로서 징벌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독자가 이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느끼고 더욱 흥미를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앞에 인용한 작자의 말에서 자신이 포은선생전을 번역했음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다.

### 3.2.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著作兼發行者 李鍾楨,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 光東書局 · 東洋書院,  
1926.11.30, 63면<sup>31)</sup>

30) 『대계』 5-6, 357쪽 등.

31)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1권, 은하출판사, 1984에 영인(2, 3쪽 누락) ; 장서각 소장 마이크로필름에 수록(청구기호 MF R16N 509,

서화담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도술이 유명하다고 여겨졌다.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이하 「서화담」으로 약칭)도 제목이 보여 주듯 서화담의 도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모두 서화담의 도술과 관련되었으나 서로 독립성이 있는 14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서화담」에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가져온 이야기가 없다. 다만 화담이 종달새가 하루하루 낮게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늘의 양기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라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만이 『화담집(花潭集)』에 일화 형식으로 전한다.<sup>32)</sup> 나머지 이야기들은 거의 다 설화에서 가져온 것이고, 작자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화담」이 수용한 설화 역시 화담의 인물설화가 있고, 일반설화를 가져다 화담의 이야기로 바꾼 것이 있다.<sup>33)</sup>

「서화담」 중 화담의 인물설화에서 가져온 이야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화담의 아우가 사밭에서 생선을 잡아내는 도술을 부리자 화담은 연못에서 잉어를 잡고 천장에서 보리쌀이 쏟아지도록 한 후 아우에게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도록 타이른다. 화담이 시험 삼아 시장한 채 하니 생질이 도술을 부려 음식을 차려 놓는다. 화담은 그것이 과부가 남편의 소상(小祥) 차린 음식임을 알려 주고 다시는 선부른 도술을 부리지 못하도록 한다.<sup>34)</sup> 송도삼절이라 일컫는 고승, 화담, 기생이 있었다. 그 기생이 고승을 유혹해 절조를 뺏었으나 서화담은 끝내 유혹하지 못했다.<sup>35)</sup>

판권지 없음). 두 종은 동일 지형으로 인쇄된 것임.

- 32) 「重刊花潭先生集序」, 「附錄 遺事」, 『花潭集』 권3 (김학주·임종욱 역, 『화담집』, 세계사, 1992, 276, 314~315쪽)
- 33) 「서화담」을 비롯한 서화담 소재 여러 이야기의 설화 수용 양상 및 설화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함. 권성윤, 「徐花潭 傳承의 樣相과 文學的 性格 -설화·설화·소설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논문, 1987.
- 34) 이상 두 가지 이야기의 관련 설화는 『대계』 9-2, 165쪽 등.
- 35) 「中宗朝故事本末, 中宗朝遺逸, 徐敬德」, 『연려실기술』 권9 ; 「徐敬德剪紙化魚」, 『大東奇聞』 권1 (김성언, 「쉽게 풀어쓴 대동기문(上)」, 국학자료원, 2001, 344~346쪽) 등.



호랑이로 변한 중이 화담을 찾아와 처녀 하나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화담의 명으로 제자 허운이 처녀 집을 찾아가니 내일 처녀의 혼례를 치르려던 참이다. 허운이 도술로 호랑이를 쫓고 처녀를 구한다. 처녀가 허운과 혼인하기를 청한다. 허운이 화담이 미리 주었던 편지를 보니 이미 처녀와 혼인을 하도록 말해 놓았다.<sup>36)</sup>

「서화담」 중 일반설화에서 가져와 화담의 이야기로 바꾼 것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 한 귀신이 화담을 찾아와 온다. 화담이 귀신과 함께 그 아버지를 찾아가 보니 그는 처녀가 호환을 당한 것으로 안다. 화담이 그 집 머슴이 처녀를 강간하려다가 죽었음을 말한다. 관청에서 머슴을 처형했다. 이는 잘 알려진 아랑전설을 가져온 것이다.<sup>37)</sup> 화담의 아내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하자 화담이 송도 제일의 부자에게 십만 냥을 꾸어 소금을 매점매석해서 큰돈을 번다. 아내는 새 집에서 호의호식하게 하고 화담은 전 집에서 그대로 산다. 아내가 채증이 나서 화담에게 고쳐달라 애원하여 전 집에 데려와 예전처럼 살게 하니 병이 나왔다. 이는 바로 박지원의 「허생전」을 가져와 변형한 것이다. 화담의 제자 허운이 길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교합하기에 이른다. 허운이 처녀에게 빠져 지내던 중 화담이 이르기를 처녀가 입으로 건네는 구슬을 삼키라 한다. 허운이 구슬을 삼키자 처녀는 울며 떠나 버린다. 처녀는 여우였고, 호정을 삼킨 허운은 더욱 총명해졌다. 이는 여우구슬 설화를 가져온 것이다.<sup>38)</sup> 소설 「전우치전」도 이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sup>39)</sup>

36) 『溪西野談』 권4 (유화수·이은숙, 앞의 책, 421~425쪽); 「徐花潭敬德送學徒救處女」, 『東稗洛誦』 (김동욱 역, 「국역 동패략송」, 아세아문화사, 1996, 235~238쪽); 『대계』 3-3, 330~332쪽 등.

37) 『대계』 7-5, 278쪽 등.

38) 『대계』 4-2, 470쪽 등.

39) 「전우치전」 이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경판 37본], 일사[一簣]문고본, 파리동양어학교 소장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문범두, 「〈田禹治傳〉의 異本 研究 -形成過程과 意味를 中心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서화담」은 이처럼 이야기 대부분이 도술과 관련된 화담의 인물설화와 일반설화로 이루어져 있다. 설화를 어떤 식으로 소설 문법에 맞춰 고쳐 썼는지 다음 인용문을 예로 보기로 한다. 여우구슬 설화를 이용한 이야기에서 허운과 여우 처녀가 수작하는 대목이다.

그녀자(여우 처녀-필자)는갓가이오더니 천연한안색에 량연한언성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는몰으겟소만은 어제도여기서 사람을회롱하는듯하더니 오  
날도여기서 사람을 반겨하는듯하니 남녀가분별이잇는데 그런도리가어디잇  
나요 이사람이매우 의심찌이녁이는걸이요  
하여 갓득이나 정을익의지못하는허운에게 책망을내여 늦코 무엇이라 말을일  
우지못하는허운에게 수작을붓치여준다 너자의책망하는수작이 허운의정에잇  
는말을자어내여 무안한김에 못득나아오는 소리로  
곰압소  
한마디대답하엿스니 허운의곰압다는말뜻은 엇진뜻인지저술자도몰으겟는데  
(중략)  
허운의 말문이열려서  
예 나는 글배우는학생이외다 선생님께글을배우다가 잘못함이잇서 々 꾸즈  
람을드름째에는 미상불 곰압계녁이든그마음으로 당신의책망에대하여 그치  
럼대답한말이오 당신을조롱함이안이외다40)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서화담」은 각 설화에 대해 내용을 적절히 변개하고 디테일을 부여하며 대화와 묘사를 첨가해 소설의 일부로 만들고 있다.

### 3.3. 「신립대장실기」

「신립대장실기」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

18, 1990, 228~230쪽 참고.)  
40) 「서화담」, 31~32쪽.

獨步 著 · 著作兼發行人 姜夏馨, 『義氣男兒 申稜大將 實記』, 太華書館, 1927.12.30, 72면<sup>41)</sup>

『신립대장실기』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3화는 설화, 4화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4화의 소재가 된 역사 상 사건은 니탕개(尼湯介)의 난이다. 니탕개는 여진족의 추장으로 본래 회령(會寧) 일대에 거주하며 조선에 회유되어 조선으로부터 벼슬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선조 16년(1583) 1월과 5월에 난을 일으켜 육진(六鎭)을 침공하였다. 이때 육진 중 한곳인 온성(穩城)의 부사였던 신립이 니탕개 무리를 토벌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sup>42)</sup> 『신립대장실기』 4화는 「연려실기술」 등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되<sup>43)</sup> 그것은 단편적인 몇 가지에 불과하다. 4화의 상당 부분은 신립과 니탕개 및 그의 장수들이 벌이는 허구의 전투 장면으로 그것은 이전 군담소설의 전투 장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신립대장실기』에서는 니탕개가 1차 침입에서 신립에게 잡혀 목이 베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완전히 허구로 꾸며진 이야기이다. 사실은 니탕개가 조선에 2차 침입을 한 뒤 수년 후에 조선에 속죄하면서 변방을 지키기를 원했

41) 소재영 · 장경남 편, 『임진왜란 사료총서』 3권, 국립진주박물관, 2000에 영인.

42) 『宣祖朝故事本末 · 李珣卒逝』, 『연려실기술』 권13 ; 『宣祖實錄』 권17 선조16년 2월7일 첫 번째 기사 ; 『宣祖修正實錄』, 선조16년 5월1일 두 번째, 세 번째 기사 ;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72호, 2005.8.

43) 소설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연려실기술」 등의 역사기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조대왕께서 크게노하시어서 오운(吳運)이란사람과 박선(朴宣)이란두사람을특별히 조방장(助防將)을배하여 날넨장수팔천명을거나리고 경원부로 풍우갓치모라가다가 도순찰사정언신(都巡察使鄭彦信)과 남병사리용(南兵使李用)이란사람이 오도병(吾道兵)을거나리고나오다가…… (『신립대장실기』, 55쪽)

上引見三公, 以吳運·朴宣爲助防將, 領勇士八千先赴, 以鄭彦信爲都巡察使, 李用爲南兵使, 金禹瑞爲防禦使…… (『宣祖朝故事本末 · 李珣卒逝』, 『연려실기술』 권13.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다. 조정에서 니탕개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체 하고 잡아 죽이도록 하였으나 그가 김새를 채고 달아나 그로부터 수년 후에 죽었다.<sup>44)</sup>

「신립대장실기」 1화의 내용은 이렇다. 신립과 한 동네에 살며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신립을 유혹하여 방에 들이고 통정(通情)을 하려 한다. 신립이 그녀의 음란함을 미워하여 칼로 목을 친다. 여자를 돌봐 주던 이병성이란 자가 오히려 신립에게 감사해 한다. 이는 관련 설화를 찾지는 못했으나 신립의 인물설화이거나 일반설화를 신립의 이야기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2화는 1화의 내용과 이어진다. 신립이 자신이 죽여 원귀가 된 여자의 해코지로 인해 끊임없이 기침을 하게 된다. 신립이 금강산으로 유람을 가 한 암자를 찾아드니 그곳의 중도 계속 기침을 한다. 신립이 연유를 물으니, 그 중이 예전에 한 부인에게 통간을 요구했다가 그녀가 목을 맨 뒤로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신립이 분노해 중을 죽인다. 자결한 여귀가 나타나 감사를 표하고 신립에게 붙은 원귀를 쫓아 기침을 멎게 해 준다. 이 이야기는 앞의 「선죽교」에 나온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인을 겁간하려다 죽인 못된 중을 징치하는 설화<sup>45)</sup>를 토대로 부연, 각색한 것이다.

3화의 내용은 이렇다. 신립이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 한 집에 찾아가니 처녀 하나가 있다. 그 집에 원한이 있는 귀신이 처녀의 식구들을 다 죽이고 그녀마저 죽이러 온 것을 신립이 물리친다. 처녀가 자신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나 신립이 권율의 딸과 이미 혼인한 처지인지라 난감한 나머지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떠나 버린다. 처녀가 비참함을 못 이겨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다. 신립이 집에 돌아오자 장인 권율이 이 사실을 본 듯이 알고 신립을 나무란다. 이는 신립의 인물설화를 가져온 것이다.<sup>46)</sup>

44) 『宣祖修正實錄』, 선조16년 5월1일 세 번째 기사

45) 『대계』 5-6, 357쪽 등.

46) 『대계』 3-2, 387~392쪽 등. 그 외 여러 편의 유사 설화가 한중구, 「申位 將軍

「신림대장실기」가 수용한 세 가지 설화는 내용 상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 모두 젊은 남녀의 치정과 여성의 비극적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3화에서 수용한 신림의 인물설화에 맞춰 의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일반설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들은 모두 자극적인 내용의 이야기로 이를 통해 소설의 흥미를 높이려 한 것이다.

#### 4. 역사·인물설화·일반설화·타소설의 결합

이 장에서는 역사와 인물설화, 일반설화 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의 내용까지 짜깁기한 소설들을 대상으로 그 서사 구성 방식 및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4.1. 「한씨보응록」

「한씨보응록」은 이해조의 작품으로<sup>47)</sup> 내제(內題)를 ‘古代小說 한씨보응록’으로 하여 고대소설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상·하권 각각 10회씩 총 20회의 장회(章回)로 구성되어 있다.

「한씨보응록(韓氏報應錄)」 상·하, 五車書廠, 1918.5.27, 상권 82면·하권 89면<sup>48)</sup>

傳設 考察(其一)», 「충주대학교 論文集」 43, 2008.12, 577~580쪽에 정리되어 있다.

47) 「한씨보응록」에는 작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홍장군전」(著作兼 發行者 李海朝, 五車書廠, 1918.5.27) 끝의 광고란에 「홍장군전」, 「한씨보응록」 두 작품을 이해조가 ‘편집’했다는 언급이 있다.

48)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活字本古典小說全集」 12, 아세아문화사, 1977에 영인. 이 영인본에는 판권지가 없어 서지는 「고전소설 이본목록」을 참고함.

「한씨보응록」은 한씨 시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한명회의 일대기로 이어진다. 큰 줄거리는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도와 보위에 올리고 여러 공을 세운 뒤 압구정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죽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 상 실제 인물이 등장하고 이야기의 큰 틀에서 역사적 사실을 따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사건은 거의 다 설화를 변형하거나 허구로 지어낸 것이다.

「한씨보응록」도 한명회의 인물설화 및 한명회와 무관한 일반설화를 활용했다.<sup>49)</sup> 그런데 「한씨보응록」이 짜깁기의 소재로 활용한 이야기는 설화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미 논의된 바대로<sup>50)</sup> 「한씨보응록」은 중국소설 「수호지」의 내용까지 각색하여 작품 속에 집어넣었다. 「한씨보응록」 12회는 70회본 「수호지」의 37회 <及時雨會神行太保 黑旋風鬪浪裏白條>와 줄거리가 똑같고 「한씨보응록」 16회는 「수호지」의 21회 <閻婆大鬧鄆城縣 朱仝義釋宋公明>과 흡사하다.

「한씨보응록」 16회의 내용을 예로 보면 이렇다. 수양대군이 권람을 데리고 기생 양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측간에 가던 중 침방에서 자고 있던 한명회의 발을 밟는다. 이로 인해 어둠 속에서 한명회, 수양, 권람이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결국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이후 수양이 한명회를 가까이 둔다. 이 내용은 「수호지」 21회와 흡사하다. 여기에 보면, 송강이 사람을 죽이고 몸을 피하여 시진(柴進)을 찾아간다. 송강이 시진과 술을 마시다 측간을 가던 중 실수로 숯불을 건드려 무송(武松)에게 불똥이 튄다. 무송이 송강에게 주먹질을 하려는 중에 시진이 끼어들어 그가 송강임을 알려 준다. 무송이 송강에게 사죄하고 두 사람이 친밀히 지내게 된다.<sup>51)</sup>

49) 「한씨보응록」이 수용한 설화에 관해서는 김순진, 「韓氏報應錄 研究 -小說의 歷史性과 虛構性 高찰을 위한 試論-」, 이화어문학회, 「이화어문논집」 5, 1982, 11~15, 18~20쪽 ; 곽정식, 「<韓氏報應錄>의 형성 과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어문학회, 「語文學」 105, 2009a, 123~127쪽 참조.

50) 김순진, 앞의 논문 ; 곽정식(2009a).

## 4.2. 「홍장군전」, 「원두표실기」

「홍장군전」도 이해조의 작품으로 내제를 '古代小說 義勇雙全 洪將軍傳'이라 하여 역시 고대소설임을 표방하고 있다. 상·하권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9회씩 총 18회의 장회로 이루어져 있다.

1. 著作兼 發行者 李海朝, 『古代小說 義勇雙全 洪將軍傳』, 五車書廠, 1918.5.27, 상권 95면·하권 80면<sup>52)</sup>
2. 『義勇雙全 洪將軍傳』 상·하권, 廣學書舖, 1926<sup>53)</sup>
3. 編輯兼發行者 姜錫祚, 『新小說 義勇雙全 洪將軍傳』, 永昌書館·韓興書林·振興書館, 1930.1.20(재판), 상권 95면·하권 80면<sup>54)</sup>

「홍장군전」은 「한씨보응록」과 자매편이다. 「홍장군전」(五車書廠, 1918.5.27) 끝의 광고란에 두 작품을 이해조가 특별 편집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두 작품 초간본의 출판사와 발행일자가 같다. 또 둘은 문종렬이라는 인물이 세조를 시해하려는 것을 한명회와 홍윤성이 구했다는 허구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sup>55)</sup>

「홍장군전」에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아주 단편적인 것이다. 홍윤성이 세조의 공신이 된 일, 안평대군이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일 정도로, 역시 특정한 역사기록을 참고한 것은 아니다. 「홍장군전」 16, 18회는 홍윤성의 인물설화 몇 가지를 취해 조금씩 각색하여 수용하였다.<sup>56)</sup> 11~15, 17회에는 작자가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

51) 이상 「한씨보응록」과 「수호지」의 비교는 광정식(2009a), 113~118쪽 참조.

52)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 古代小說全集』 32권, 은하출판사, 1984에 영인.

53) 영남대 도남문고 소장. 「고전소설 이본목록」 참고.

54) 충남대 도서관 소장. 판권지에 초판 발행일자는 1926.2.20으로 되어 있음. 1과 3은 동일한 지형으로 인쇄한 것임.

55) 광정식(2009a), 118~123쪽 참조.

그리고 「홍장군전」 역시 「수호지」의 내용을 빌려왔다. 일찍이 김태준이 「홍장군전」이 「수호지」의 일부분을 보철(補綴)하고 무대를 조선으로 옮겼다고 언급하였고,<sup>57)</sup> 이후의 연구에서 양 작품의 자세한 비교가 이루어졌다.<sup>58)</sup> 「홍장군전」 1~6회는 70회본 「수호지」 중 23~25회의 모방이고, 「홍장군전」 7~10회는 「수호지」 26~31회의 모방이다.

「홍장군전」 1~6회 내용을 예로 보면 이렇다. 세종 조 충청도 회인에 대성, 윤성 형제가 살고 있었다. 동생 윤성은 인물이 준수하고 기백이 있는 데 반해 형 대성은 인물도 못났고 사람됨이 유약하다. 토포군관 윤성이 공주로 파견되어 간 사이에 대성의 부인 설씨녀가 태만석과 통간하면서 대성을 독살하기에 이른다. 윤성이 회인에 돌아와 형의 죽음을 알고 설씨녀, 태만석, 그리고 그들에 동조한 이들을 타살한 후 유배를 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수호지」 23~25회와 줄거리가 같다. 해당 회의 「수호지」 역시 반금련(潘金蓮)이 서문경(西門慶)과 통간하고 남편 무대(武大)를 독살하자 동생 무송(武松)이 형수 반금련과 서문경, 그리고 연루자들을 응징하는 이야기이다. 다만 등장인물과 세부적인 사건에서 양 작품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원두표실기」<sup>59)</sup>는 이처럼 「수호지」를 모방한 「홍장군전」을 다시 모방하고 있다. 「원두표실기」의 중간 부분 이야기는 「홍장군전」 7~10회를 가져와 인물만 바꾼 것이다. 「원두표실기」의 중간 부분은 「수호지」 26~31회의 모방의 재모방인 것이다. 「원두표실기」에서 이 중간 부분을

56) 이경선, 「洪將軍傳 研究」, 『韓國學論叢』 5, 1984, 236~238쪽 ; 광정식, 「〈洪將軍傳〉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81, 2009b, 417~421쪽.

57) 김태준, 『朝鮮小說史』, 清進書館, 1933, 68쪽.

58) 이경선, 앞의 논문, 224~236쪽 ; 광정식(2009b), 407~411쪽.

59) 1. 「義勇無雙 元斗杓實記」, 太華書館, 1930, 50면.

2. 朴竣杓 著 · 著作兼 發行者 申泰三, 「義勇無雙 元斗杓實記」, 世昌書館·文昌書館·天一書館, 1962.12.30, 50면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29권, 은하출판사, 1984에 영인)



전후한 이야기는 대개 원두표의 인물설화를 가져다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인물 원두표에 관한 단편적 사실이 작품 서두와 결말에 짧게 반영되어 있다.<sup>60)</sup>

## 5. 짜깁기방식 역사소설의 특성과 제작 배경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작품들은 서사 구성의 방식 상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의 행적을 시간 순서에 맞춰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관련된 역사적 사실, 주인공의 인물설화, 나아가 일반설화나 타 소설의 서사까지 주인공의 이야기로 바꾸어 연결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질적인 기존의 여러 가지 서사를 짜깁기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사를 선별, 배치하고 약간씩 변형하는 중에 작자의 창의가 발휘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능동적인 재해석이나 재창작의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며 기존 서사를 크게 변형하지 않은 채 수용하고 있다.

이 같은 활판본 역사소설의 짜깁기방식은 일차적으로 이전 고소설로부터 이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박태보전(朴泰輔傳)」, 「신미록(辛未錄)」은 역사기록을 발췌·편집한 방식을 보이고,<sup>61)</sup> 「임진록(壬辰錄)」은 이본에 따라 역사성을 바탕으로 설화를 가미한 방식을 보인다.<sup>62)</sup> 또 「최치원전(최고운전)」에는 여러 일반설화를 가져와 최치원의 이야기로 만드는 방식이 쓰였고,<sup>63)</sup> 「일락정기(一樂亭記)」와 「홍낭전(紅娘傳)」에는 다른 소설

60) 이경선, 앞의 논문, 240~242쪽 ;곽정식, 「〈元斗杓實記〉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52, 2009.8.

61)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탐구」, 월인, 2001, 40~46, 74~77쪽.

62) 소재영·장경남, 「해제」, 한국고전문학전집 4 「임진록」,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63) 김장동, 「II.1. <崔孤雲傳>」, 『朝鮮朝 歷史小說研究』, 二友出版社, 1986 ; 정병욱, 「崔文獻傳에 대하여」, 『한국고전의 재인식』, 기린원, 1988 ; 한석수, 「崔致遠傳承의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1, 31~37, 199~204쪽.

들의 내용을 가져와 짜깁기하는 방식이 쓰였다.<sup>64)</sup>

본고에서 살핀 역사소설들은 이처럼 고소설로부터 계승된 이 짜깁기방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역사소설들은 기존 서사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소설 줄거리의 거의 전부를 기존 서사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역사기록, 설화, 타 소설의 서사 등 상호 이질적인 이야기를 한 작품 안에서 과감하게 결합해 놓고 있다. 고전 서사의 이러한 짜깁기방식은 20세기 초반의 통속적인 활판본 역사소설 가운데 여러 작품에서 쓰이면서 서사 구성의 한 스타일로 양식화되었다.

그렇다면 활판본 역사소설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짜깁기방식을 활용하게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소설들이 이윤 추구에 충실한 상업 소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제 시대에 총 500여 곳에 이르는 출판사와 서적 소매점이 있었고,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중복 출판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이러한 일은 특히 고소설 출판의 경우에 많았다. 그 와중에 출판업자 간에 판권을 둘러싼 법적인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판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공동 출판을 시행해 보기도 하였으나 중복 출판은 여전히 횡행하였다. 또 출판업자들은 책의 정가에서 많게는 7할까지 할인을 해 가며 심한 가격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sup>65)</sup> 이런 상황에서 출판업자들은 일단 소설이 잘 팔리도록 만들어야 했고, 그러자니 대중 독자의 기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활판본 고소설의 주된 독자는 농민, 노동자, 일반 여성이었다.<sup>66)</sup> 본고에

64) 서현경, 「『樂亭記』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2, 32~40쪽; 권도경, 앞의 책, 175~181쪽.

65)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2, 19, 54, 74~75, 78~79, 103쪽; 飲冰客, 「冷巖熱評 - 出版業者」, 「청춘」, 7호, 1917.5, 68~69쪽.

서 살핀 역사소설들의 독자 역시 것처럼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이었다. 앞의 3장 1절에서 인용했던 「선죽교」 작자의 말 중 ‘부녀, 아동까지’ 이 작품을 읽도록 하겠다는 대목을 통해서도 이들 소설이 대상으로 삼은 독자층이 어떠한 계층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소설이 한글로 쓰인 것은 그러한 독자층을 겨냥한 결과이다.

역사기록과 설화, 그리고 다른 소설의 내용까지를 결합한 짜깁기방식은 이처럼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대중독자의 기호에 부응하고자 한 방안이다. 소설 중에 나오는 단편의 역사적 사실은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지적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 준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사이사이에 들어간 설화와 허구의 내용은 독자가 이야기에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역시 3장 1절에서 인용한 「선죽교」 작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작자는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설화와 허구의 내용까지 읽는 이로 하여금 사실로 믿고 이를 실감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 역사기록과 설화는 한데 섞이기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어질적인 서사로, 이러한 식의 서사가 지식 수준이 있는 독자에게는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짜깁기식의 활판본 역사소설이 산출된 이유를 이번에는 작자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일제 초기의 상황을 예로 보면, 서적을 새로 출판하면 지방 주문에 대한 판매와 동업자 간의 교환 등으로 보통 1,000부는 팔려 나갔고, 1,000부를 팔면 본전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출판업자들은 어떻게든 새로운 원고를 구해서 일단 새 책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 부응하여 당시 일부 작자들은 원고료를 벌고자 단 며칠 만에 마구잡이로 소설 원고를 써서 출판업자에게 싼값에 팔아넘기곤 했다.<sup>67)</sup>

現下朝鮮의 書籍界를 察히건디 著書家가 林々相望호야 五日에 一卷을 成

66) 이주영, 앞의 책, 109~114쪽; 권순궁, 앞의 책, 299~302쪽; 방효순, 앞의 논문, 39~44쪽.

67) 방효순, 앞의 논문, 26, 86~87, 109~110쪽.

하며 十日에 一帙을 作하니 …… 其心을 推究하건대 書籍을 著하야 若干의 板權費를 希望함에 不過하니 貪多務得의 弊가 可無치 못할지라…… (『書籍界에 對하야』, 『每日申報』, 1914.6.11, 1면.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는 필자.)

되지못한 原稿를 싸아 넘혀 끼고 冊肆 摘奸을 하여 돌아다니며 그 原稿의 재미있습과 잘 팔릴것과 감시 쓴것을 嘍嘍 說明하고 마춤내 「五圓은 적으니 신발 감시나 되게 一圓만 더 줍시오」하고 동냥하듯이 감슬 독가야 될지니 冊肆에 노힌 울긋불긋하고 들승날승한 小說類는 다 이리하야 된것이니 여러 분은 「粒粒皆辛苦」를 생각하는가 (飲冰客, 『冷罵熱評 - 서풍 자리 文士』, 『청춘』 7호, 新文館, 1917.5, 68쪽)<sup>68)</sup>

위 인용문은 당시 작자들 사이에 원고료를 얻고자 쉽고 빠르게 원고를 만들어 내는 풍조가 퍼져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짜깁기방식은 보다 손쉽게 소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다. 특히 역사소설을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 용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역사 인물 중 한 명을 주인공으로 세워 관련 역사적 사실 및 인물설화를 가져오고,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고자 하면 주인공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일반설화나 다른 소설의 내용까지 가져와 한 편의 소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작자가 책상 앞에 앉아 역사서를 비롯한 이런저런 책들을 벌여 놓고 그 내용을 원고용지에 펜으로 베껴 가며 서둘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풍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는 20세기 이후 새로운 출판 환경 속에서 보편화되었을 다분히 근대적인 풍경으로, 짜깁기방식의 역사소설은 이러한 풍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짜깁기식 역사소설이 산출된 기타 주변적 요인들도 있다. 앞에서 이들 소설에 주로 참고가 된 책이 「연려실기술」, 「해동명장전」 등의 몇 가지 역사서이며, 이 역사서들이 1910년을 전후해 근대적 형태의 서적으로 출판되

68) 본고에 쓰도록 각주 65, 68번의 자료를 알려 주신 이윤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었음을 보았다. 이처럼 조선의 고서들이 근대적 출판물로 보급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20세기 초에 본고에서 살핀 역사소설을 비롯한 여러 역사서가 나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대중 독자는 이들 역사소설을 보면서 역사기록에 착종된 설화나 허구의 내용까지 역사적 사실로 알게 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에 들어 대중적 지식과 교양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의 일면을 아울러 엿볼 수가 있다.

## 6. 결론

1910년 무렵부터 고전서사를 짜깁기한 일련의 역사소설들이 나왔다. 이들은 과거 역사 속의 위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설화를 결합하고, 나아가 일반설화나 타 소설의 내용까지 주인공의 이야기로 만들어 결합한 작품들이다.

연말자에 의한 새로운 인쇄기술의 도입으로 20세기 초 출판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출판업자들은 새로운 책을 만들어낼 새로운 원고를 계속 구했고, 당시 대개 무명(無名)으로 활동한 작자들이 이에 부응해 기존의 여러 텍스트를 짜 맞추는 방법으로 빠르고 손쉽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이러한 유의 활판본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들은 주로 지식 수준이 낮은 독자들에게 읽히며 역사 지식과 오락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동시에 채워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세기 초의 활판본 소설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서지(書誌)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다.<sup>69)</sup> 텍스트의 내적·외적 요소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형식, 출판사, 독자, 시대적·정치적 환경 등에 관

69) 이주영, 앞의 책 ; 권순궁, 앞의 책 ; 방효순, 앞의 논문 등.

한 기존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는 텍스트 내적인 분석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하겠고, 양 방향의 연구 성과가 상호 검증·보완을 통해 함께 진전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본고에서 대상 텍스트의 서사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당대 출판 환경과 독자, 작자의 연관 속에서 살핀 것은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앞으로 역사소설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활판본 소설 전반을 대상으로 짜깁기방식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신작 고소설의 대표작으로 꼽는 <추풍감별곡>도 시가(詩歌) <추풍감별곡>을 수용하고 중국 소설 <왕교란백년장한(王嬌鸞百年長恨)>을 여러 면에서 모방한 작품이다.<sup>70)</sup> 또 설화의 수용이 신작 고소설의 보편적인 저작 방식이라고 보기도 한다.<sup>71)</sup> 20세기 초 활판본 소설에서 짜깁기방식이 어느 정도 널리 활용된 소설 작법이었는지, 각 작품의 짜깁기방식이 기법이나 창의성 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러한 방식이 활용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등은 아직 자세히 연구되지 못한 문제로 이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본고에서 살핀 소설들과 대조군에 속하는 작품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향후 과제 중 하나가 되겠다. 같은 시기 활판본 소설 가운데 실명(實名) 작가에 의한 작품, 일관된 주제 의식에 따라 창작된 작품, 지식 수준이 높은 독자를 한 작품, 한문으로 쓰인 작품 등을 본고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살핀다면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날 것이다.

- 핵심어: 짜깁기, 강감찬전, 남이장군실기, 인조대왕실기, 선죽교(일명 정포은전),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 신평대장실기, 한씨보응록, 홍장군전, 원두표실기

70) 박상석, 「<秋風感別曲>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7.2, 54~66쪽.

71) 이은숙, 『신작 고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0, 429~430쪽.

## &lt;참고 문헌&gt;

\* 작품과 자료의 서지 및 출처는 각주로 대신함.

- 권도경,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통속화의 한 경향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권순공, 『活字本古小説의 편폭과 지향』, 보고서, 2000.
-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탐구』, 월인, 2001.
- 김현룡, 『한국 문헌설화』 1~7,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2000.
- 김태준, 『朝鮮小説史』, 清進書館, 1933.
- 소재영·장경남, 한국고전문학전집 4 『임진록』,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 이은숙, 『신작 구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4, 2005.
-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곽정식, 「<元斗杓實記>의 창작 방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문학논총』 52, 2009.8, 31~55쪽.
- 곽정식, 「<韓氏報應錄>의 형성 과정과 소설사적 의의」, 한국어문학회, 『語文學』 105, 2009, 111~135쪽.
- 곽정식, 「<洪將軍傳>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81, 2009, 405~432쪽.
- 권성윤, 「徐花潭 傳承의 樣相과 文學的 性格 -실기·설화·소설을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논문, 1987.
- 김순진, 「韓氏報應錄 研究 -小説의 歷史性과 虛構性 高찰을 위한 試論-」, 이화어문학회, 『이화어문논집』 5, 1982, 9~24쪽.
- 문범두, 「<田禹治傳>의 異本 研究 -形成過程과 意味를 中心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18, 1990, 227~256쪽.
- 박상석, 「<秋風感別曲>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7.2.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2.
- 서현경, 「一樂亭記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8.2.
- 송우혜,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72호, 2005.8, 298~329쪽.
- 오영섭, 「朝鮮光文會 研究」, 韓國史學史學會, 『韓國史學史學報』 3, 2001.3, 79~140쪽.
- 이경선, 「洪將軍傳 研究」, 『韓國學論叢』 5, 1984, 219~248쪽.
- 최혜주,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고서 간행사업」,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大東文化研究』 66, 2009, 417~448쪽.
- 한종구, 「申位 將軍 傳設 考察(其一)」, 『충주대학교 論文集』 43, 2008.12, 567~584쪽.



<Abstract>

The study on the printed historical novels  
made by invisible mending

Park Sang-seok

From 1910's many historical novels pursuing amusement rather than lesson have been published. A kind of those historical novels was made by 'invisible mending'.

Concrete method of invisible mending is as follows. First, combining historical fact with hero/heroine's tales. Second, combining historical fact with hero/heroine's tales, and general tales which is modified for hero/heroine's story by the writer. Third, combining historical fact with hero/heroine's tales, general tales, and other novel's story which is also modified for hero/heroine's story by the writer.

Invisible mending was that handed down from old novels of the Josen(朝鮮) dynasty. Invisible mending historical novels used that method very positively, so most part of the outline have been composed by the existing stories. And those novels combined heterogeneous stories daringly in a work. The invisible mending method have become a style of the historical novels in the early 20'th century.

Printed novels as a commercial goods have pursuit amusement positively. It was the reason why the invisible mending historical novels borrowed other interest stories. The publishers have made new works continuously to make profits, and the writers following that have made manuscripts in a short term. In this circumstances the

invisible mending method became the way that writers could make the story easily in a short time.

- key wards: invisible mending, Kang-kam-chan-jeon, Nam-yi-jiang-kun-sil-ki, Yin-jo-dae-wang-sil-ki, Seon-juk-gyo, Seohwa-dam, Sin-lip-dae-jiang-sil-ki

\* 이 논문은 2010년 7월 5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